

민주당 광주시당, 의원 연수 형평성 논란

‘거짓 출장’ 시당위원장 직권 윤리심판원 회부

‘꼼수해외연수’는 사실관계 파악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지방 의원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와 심사를 놓고 형평성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외유성 출장’, ‘꼼수해외연수’ 등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이 각 기초의회별로 각기 다른 대응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거짓 출장 논란’이 제기된 복구의회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출장비를 받고 통영에 다녀온 복구의회 2명과 지비를 들여 통영에 간 복구의회 2명을 모두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비를 들여서 같이 간 것을 공무상 연수로 볼 수 있는지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등을 보니 4명으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뒤늦게 “일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경중과 진위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서구의원 7명이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연수 성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는데다가 일부 일정이 의회를 거치면서 행사성 일정으로 바뀌었고, 4박6일간 일정 중 대부분 오후에는 문화탐방으로 돼 있는 등 관광성 연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7월 시당 차원에서 만든 ‘지방의원 국외연수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서구의원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규칙은 강

행규정도 아니고 징계사유는 더더욱 아니다. 연수보고서를 통해 연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지방의원이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서구의회에 대한 대처가 봐주기식 대처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가장 많이된 복구의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야기했다고 강경책을 내놓고, 서구의회는 각종 문제점과 함께 꼼수를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주시당의 정책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초의원 A씨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의원들이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

방의회의 대부분 연수보고서가 같이 간 전문위원이나 공무원 등의 손에서 써졌던 것을 정말 몰라서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반성도 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방의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허용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신봉우 기자



ASF 더이상 확산은 안돼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발생한 10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매몰을 위해 대형 플라스틱통 운반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구청 간부 공무원, 부하직원에게 대리시험 강요 의혹

광주 광산구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자격증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가 감사에 나섰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부서는 지난달부터 광산구청 간부 공무원 A씨의 대리시험 의혹과 갑질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시험’을 부하 직원 6명이 대신 치르게 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에게 관련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시험은 컴

퓨터 시험에 응시하며 책을 보고 문제를 푸는 오픈북 형식으로 A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험 도중 부하 동료에게 모르는 부분을 도움받은 것일 뿐 대리 시험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갑질은 앞서 제보가 됐고 감사까지 벌인 사항이었지만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갑질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광산구 감사관실은 이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 A씨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

와 인사 조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공무원노조는 “구의 솜방망이 처벌로 갑질과 대리시험 강요가 지금까지 이어져 피해 직원이 더 늘었다”며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피해 부하 직원만 6명 이상이고 여러 정황상 A씨가 직위와 위력으로 갑질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쯤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화장실 바닥에 불일 본 60대男 시민 폭행까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번기가 아닌 공동화장실 바닥에 불일을 보고 이를 나무라는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 한상가건물 화장실에서 B씨(51)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번기가 아닌 바닥에 대변을 봤는데 이를 본 B씨가 “똥하는 것이냐”며 나무라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서구 매월동 식품공장 폐지더미 불

9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식품공장 내 폐지더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폐수처리장 샌드위치패널 외벽 1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30여분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당국 등은 폐수처리장 가건물 옆 폐지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서 SUV차량과 화물차 충돌 1명 사망

10일 오전 2시23분쯤 여수시 서교동 룰러리 인근 도로에서 A씨(45)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B씨(72)는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주택서 70대男 화상 입은 채 발견

광양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광양시 한 주택에서 A씨(72)가 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주택 내부는 식탁 등이 조금 그을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 40대 구인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근)는 A씨(46)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출소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5월 치료감호 수용이 종료돼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일 새벽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적발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 밖으로 외출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환절수설 하는 등 약에 취한 상태였다.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